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경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적다. 병실에서 흔히 보는 일이지만 백혈병 환자가 여러 환자들과 가족들이 드나드는 방에 입원해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환자들은 거의 모두가 감염 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출혈이 있게 되면 血小板이 충분히 들어 있는 신선한 혈액을 수혈해 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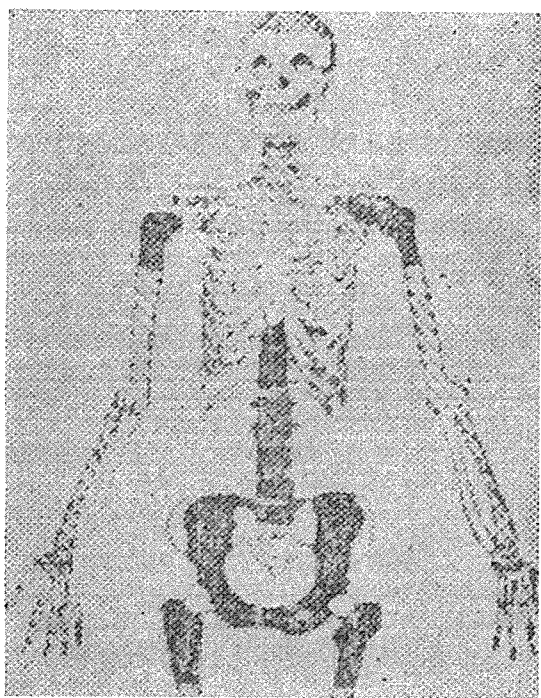
다음으로 化学요법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화학 요법은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백혈병 세포들을 죽이는 방법을 말한다.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 쓰이는 약도 각각 다르다.

약에 따라서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을 적절히 병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약들은 백혈병 세포와 같은 어린 세포들을 죽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지만, 대량 사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성숙한 세포도 손상을 입게 되고 심한 때에는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가격이 비싸고 약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것도 있다는 것이 短点이라 하겠다.

백혈병 치료제는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백혈병 세포가 모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 반복 사용하여 일단 증세가 없어지게 되면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반복하여 약을 사용하고 백혈병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최근에 백혈병 세포의 세포 분열 시기를 통일시켜 약을 투여함으로써 한꺼번에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연구중에 있고, 또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BCG같은 免疫療法 등이 일부 질환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 이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나 수년내에 획기적인 방법이 대두될 것이라 기대된다.

위와 같은 치료법으로 백혈병환자의 수명은 옛날보다 많이 연장 되었다. 즉, 1940년대까지는 성인 급성 백혈병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했으나 요즈음 급성 淋巴性 백혈병은 평균 2年, 급성 骨髓性 백혈병은 1년

으로 연장되고, 초기 치료를 충분히 하고 그 후 계속 주기적으로 전문의에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당수가 오래 생존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환자가 다수 있다. 또한 만성 백혈병의 경우도 평균 생존기간이 4~6년이며, 10년 이상씩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로 치료면에 향상이 있게 되었다. 백혈병도 앞으로 완치 가능할 때가 올 것이라 기대된다.



백혈병 때, 뼈에 변화가 오는 부위, 검정표시에 주로 많이 온다.

병실에서 가끔 경험하는 일이지만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 치료를 받게 하여 생존을 연장시키고, 환자로 하여금 보다 덜 고통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족들이나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